

2027년 「제95차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1. 행사개요

- **행사명** : 2027년 국제대댐회(ICOLD) 제95차 연차회의
The 95th ICOLD Annual Meeting 2027
- **時/所** : '27.5.21(금)~28(금) (약 8일간) / 대전컨벤션센터(DCC)
- **주관** : (사)한국대댐회
- **주최** : 대전시, K-water / **후원** : 기후부, 주요 회원사 등
- **참석** : 약 80개국, 약 1,800여명(해외 900명, 국내 900명 목표)
* ICOLD 총 회원국은 106개국이며, 연차회의시 통상 60~70개국, 약 1,600명 참여
- **구성** : 연차회의(회의, 심포지움, 워크숍 등) 및 부대행사(전시회, 투어 등)

연차회의			+	부대행사		
정기회의	학술 심포지움	기술 워크숍		투어프로그램	전시회	네트워크 행사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연구성과 공유 및 토론	우수기술 전파, 공유, 확산		테크니컬, 동반자투어 등	댐기술 전시, 공유, 거래	환영/환송만찬 문화행사 등

▪ 세부일정

5.19(수)-20(목)	5.21(금)	5.22(토)	5.23(일)	5.24(월)
·스터디 투어	·ICOLD이사회 ·ICOLD이사회 /조직위 회의	·이사회/기술위원장 회의 ·시티투어	·등록 ·기술위원회워크숍 ·시티투어 ·단기교육	·기술위원회회의 ·지역위원회미팅 ·젊은기술자포럼 ·단기교육
5.26(수)	5.26(수)	5.27(목)	5.28(금)	5.29(토)-31(월)
·개회식·국제심포지움 ·특별세션 ·환영만찬 ·기술전시 개막식 ·성평등TC오찬	·국제심포지움 ·워크숍 ·문화체험/문화행사 ·기술전시	·국제심포지움 ·문화행사 ·기술투어 ·기술전시	·정기총회 ·폐회식 ·기술투어 ·환송만찬	·스터디 투어

2. 행사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

2027년 5월 21일~28일, 대전 컨벤션 센터(DCC)

한국대댐회
카카오톡 채널 개설!

채널을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과
ICOLD 2027 정보를 받아보세요.



QR로 채널 바로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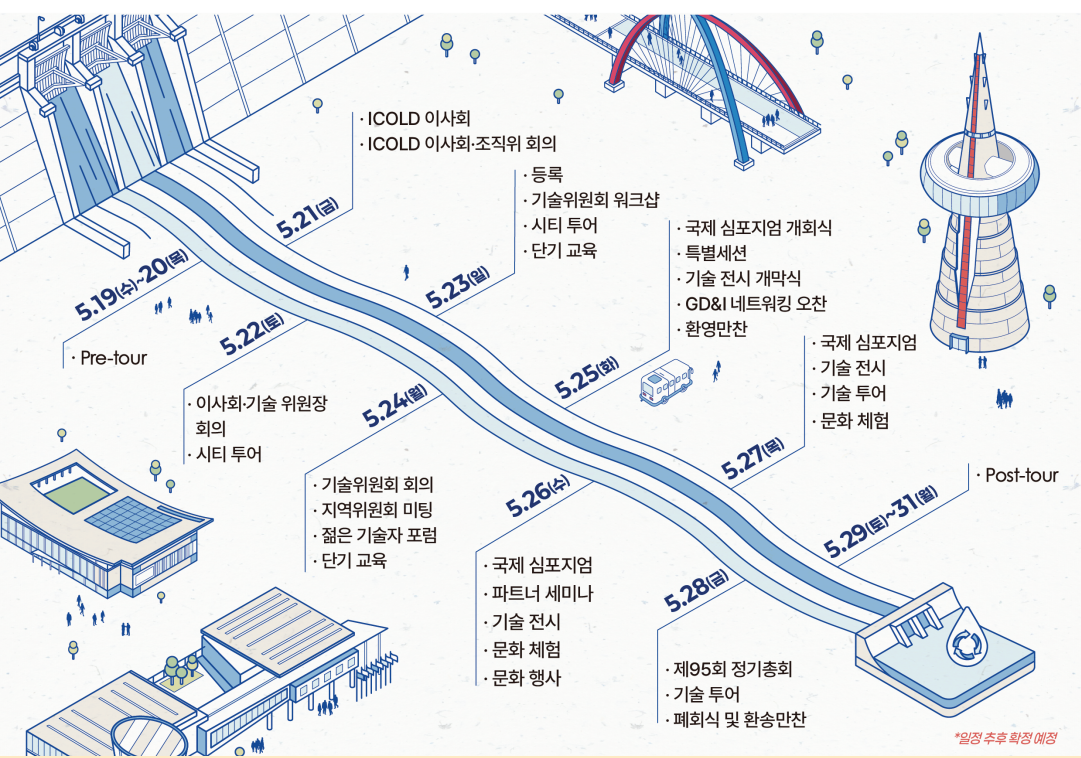
심포지움

기후변화 시대의 댐 안전과 회복탄력성

Dam Safety and Resilienc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논문모집

- ① AI 활용 댐 공학의 혁신
- ② 미래를 위한 댐-제방 안전 신뢰 구축
- ③ 테일링댐 안전 및 환경 관리
- ④ 극한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설계 및 시공
- ⑤ 기후변화 시대 최적 운영 기술
- ⑥ 수환경 및 수생태
- ⑦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물 에너지 기술
- ⑧ 양수발전 기술
- ⑨ 지속가능한 수자원 거버넌스, 정책 및 기술적 도구



*일정 추후 확정 예정

3.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 준비현황

- 23년 만에 유치한 세계 최대 댐 기술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의 여정 -

한국대담회는 2024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2차 ICOLD 연차회의에서 2027년 대전 연차회의 유치를 확정하였다. 이는 2004년 서울 대회 이후 23년 만의 국내 개최로, 한국 댐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재 확인하는 뜻깊은 성과이다. 본 고에서는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의 개최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 하여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가. 개최 준비 현황

1) 5단계 반기별 추진 로드맵

한국대담회는 2025년 2월 「ICOLD 2027 성공 개최를 위한 반기별 5단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① 1단계(2025년 상반기): 행사 준비체계 구축 및 KNCOLD 조직 확대, ② 2단계(2025년 하반기): 개최준 비위원회 출범 및 심포지엄 의제 확정, ③ 3단계(2026년 상반기): 행사기본계획(MP) 수립 및 ICOLD 사전 답사 대응, ④ 4단계(2026년 하반기): 조직위원회 출범, 행사 프로그램 및 세부계획 확정, ⑤ 5단계(2027년 상반기): 글로벌 홍보 전개 및 본 행사 성공 개최이다.

1단계 (2025년 上) >>	▪ '27년 대전 연차회의 기본계획(MP) 수립(2월) ▪ 대전시(제·행정적 지원) 업무협약 체결(2월) ▪ 심포지움 주제 대국민 공모(3월) ▪ '25년 중국 연차회의 참여 글로벌 홍보(5월) - 마·캐·일·중 대담회 협력방안 논의(상시)
2단계 (2025년 下) >>	▪ 한국대담회 산하 개최준비위원회 구성(8월) - 공공·학계·기업 등 수자원 전문가상시(66명) ▪ 심포지엄 주제 공모심사 및 주제 선정(10월) ▪ 캐나다대담회 컨퍼런스 참여 글로벌 홍보(11월) ▪ ICOLD 임원단 사전방한 준비(12월)
3단계 (2026년 上) >>	▪ 한국대담회 사무국 확대(2인→5인, 1월) - 사무국장 및 직원 등 4인(K-water 파견) ▪ 대전관광공사(관광,인프라) 업무협약 체결(2월) ▪ ICOLD 임원단 사전방한(3월) ▪ '27년 대전 연차회의 운영대행사 선정(5월) ▪ '26년 멕시코 연차회의 참여 글로벌 홍보(5월) - ICOLD 업무협약 체결, 마·캐·일·중 협력 합의

4단계 (2026년 下) >>	▪ 부대행사 프로그램 확정(8월) - 시티투어, 기술투어, 문화행사, 기술전시 등 ▪ '27년 대전 연차회의 조직위원회 출범(9월) - 기후부, 대전시, K-water, 학계, 기관 등 ▪ 심포지엄 논문 접수·심사·발표자 확정(9월~) ▪ 행사 참가자 및 전시부스 신청 접수(10월~)
5단계 (2027년 上) >>	▪ 행사장 조성 및 사전리허설(4월) ▪ 세부 업무분장 수립 및 행사 개최(5월) - K-water 특별세션·기술투어·기술전시 참여 - 고위급 면담, 업무협약 체결 등 ▪ 행사 결과보고 및 백서 작성(6월)

2)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국내에서는 대전광역시('25.2월) 및 대전관광공사('26.2월)와 공식 MOU를 체결하여 행정·재정 지원과 관 광·인프라 토탈 솔루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등 국내 주요 수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ICOLD 사무국 및 미국(USSD)·캐나다(CDA)·중국 (CHINCOLD)·일본(JCOLD) 등 주요 회원국과의 실질적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3) 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구성

한국대담회 5개 기술분과위원회(공공·학계 전문가 약 50명)가 참여하여 심포지엄 대주제를 「기후변화 시대 의 댐 안전과 회복탄력성(Dam Safety and Resilienc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으로 확정하였다. 세션은 ① AI 활용 댐 공학의 혁신 ② 미래 댐·제방 안전 신뢰 구축, ③ 테일링댐 안전 및 환경관리, ④ 극한환 경·기후변화 대응 설계 및 시공, ⑤ 기후변화 시대 최적 운영기술, ⑥ 수환경 및 수생태, ⑦ 탄소중립을 위한 물 에너지 기술, ⑧ 양수발전 기술, ⑨ 지속가능한 수자원 거버넌스·정책 및 기술적 도구9개 주제로 구성된다.

4) 홍보 및 원로 소통 강화

국내에서는 한국대담회 고문단, 수우회, 한국수자원학회 간담회, 대전·서울지역 OB 간담회, 한국대담회 정 기총회 등을 통해 원로 전문가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25년 중국·'26년 멕시코 ICOLD 연차회의 전시부스 운영, 유네스코·AWC·세계물포럼 등 국제기구 행사 연계 홍보, 국제수환경공학 회 학술대회 부스 운영 등 전방위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5) ICOLD 임원단 사전답사(2026.3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 ICOLD 임원단 사전답사에서는 대전관광공사 미팅, K-water CEO 공식 접견, 현장 시찰 및 기술 투어, 실무 논의가 이루어졌다. ICOLD는 공식 SNS를 통해 “한국대댐회와 K-water의 환대와 수준 높은 교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으며,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개최 준비의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나. 향후 계획

1) '26년 하반기: 조직위원회 출범 및 등록 개시

한국대댐회 회원사, 정부·공공,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조직위원회를 3분기에 공식 출범시켜 개최 준비를 본격화한다. 연차회의 등록비는 ICOLD 협의를 통해 편성하되 국내 참가자용 할인제도를 운영하며, 다이아몬드·플래티넘·골드·실버의 4단계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부스, 기술상담, 기업 설명회 등 후원기관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26년 8월 중 시티투어, 기술투어, 문화행사, 기술전시 등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수자원 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부터는 심포지엄 논문 접수·심사를 본격 진행하여 국내외 발표자를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간다. 10월부터는 행사 참가자 및 전시부스 신청 접수를 개시하여 국내외 참여 저변을 확대하고, 미국·캐나다·일본·중국 대댐회와의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참가자 및 후원기관 유치를 한층 강화한다.

2) '27년 상반기 : 최종 준비 및 성공 개최를 위한 만전(萬全)

'26년 하반기부터 '27년 상반기까지는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종 준비 및 점검 단계이다. '27년 상반기에는 ICOLD 임원단의 최종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개최식·총회·기술세션·현장답사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행사 진행 전반을 꼼꼼히 재점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전시 및 K-water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회의장 인프라, 숙박·교통·의전, 안전관리, 위기대응 등 참가자 지원체계를 완비한다. 아울러 국내외 언론 홍보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 다국어 안내자료 배포, SNS 채널 및 홍보 영상 제작·확산 등을 통해 대회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참가자 편의를 위한 사전등록 시스템과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이러한 단계별·다각적 준비를 통해 한국대댐회는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를 대한민국 수자원·댐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각인시키고, 차세대 물 전문가 육성과 국제 협력 확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성공적 국제행사로 반드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맺음말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수자원·댐 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재정립하고 차세대 물 전문가들에게 세계 무대를 열어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행사의 성공 개최와 지속가능한 한국대댐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